

고창군 어촌·어항 개발 현황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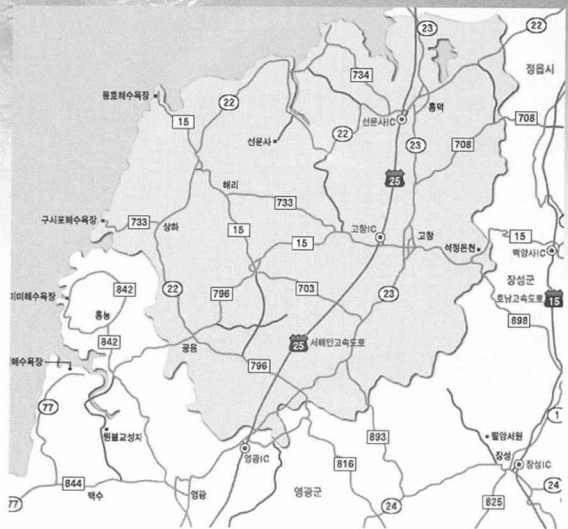
김연수
고창군 해양수산과장

1. 머리말

구시포항이 속해 있는 상하면은 고려시대에 장사현에 속해 있다가 이조시대에는 무송과 장사현을 병합하여 무장현이라 칭하였다.

일제시대에 와서는 상이면과 하이면을 통합하여 상하면이라 개칭하였다.

상하면은 고창군의 남서부 서해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라남도 영광군과 경계를 잇는 지역으로 동쪽은 송림산 등을 경계로 무장면, 공음면과 접하며 서쪽은 서해, 남서쪽은 전남 영광군 홍농읍, 북쪽은 장군산이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구시포항이 위치한 자룡리는 서측 해안선에 위치해 있다.



고창군 지도

구시포항은 3월초부터 6월에 소라 껍데기를 이용한 주꾸미 잡이가 전국적으로 매우 유명한데 이때 잡히는 주꾸미는 알이 가득해 미식가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또한 구시포해수욕장은 해안선을 따라 완만한 해변이 광활하게 펼쳐져 있어 해수욕하기에 위협하지 않으며 천연의 피서지로 제격이다. 세사금모래사장의 낚섬 기슭에는 정유재란 때 주민 수십 명과 비둘기 수백마리가 반년동안 피난했다는 천연동굴이 있고 해안 일대에는 기암괴석이 널려 있으며, 1Km쯤 앞에는 갯만 같은 형상의 가막도를 배경으로 노을의 아름다운 전경이 펼쳐져 관광객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곳이다.

고창군의 연안은 넓은 간석지로 이루어져 있어 어항 발달에 제약이 많아 어업인이 불편을 초래하여 오던 중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구시포어항이 1990년 1월 1일 지역어선의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전라북도에서 지방어항으로 지정, 개발돼 왔다. 이후 1999년 1월 1일 국가어항으로 지정되면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개년간 총 사업비 542억이 투자되는 공사로 2002년부터 연륙도로를 개축하고 있으며 2005년까지 82억원이 투자되어 공사가 더디게 추진되어 오다가 2006년부터는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군의 지역적 특성 및 연안 환경과 수산업 환경 변화 및 추진사업 현황을 바탕으로 수산업 기반 구축 관련 어촌어항 개발 현황과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본다.

2. 연앙 및 문제점

가. 현황

영광원전의 온배수에 의한 어업권 상실과 자원고갈로 어로어업의 환경변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서 구시포어항을 중심으로 한 어촌관광으로의 전환과 해수욕장과 연계한 수산제조업, 수산서비스업이 발달하고 있다.

특히 고창군에서는 고창해안의 잠재력을 조사 분석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하여 해안선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군비 5억으로 주5일 근무시대 어업환경 변화에 맞추어 어촌의 경쟁력 확보와 구시포항을 체계적인 다기능어항으로 비전을 제시하여 난개발을 사전에 방지하고 구시포항 중심의 자족능력을 갖춘 어촌정주권에 목적을 두고 용역을 시행하고 있다

나. 문제점

1) 영광원전 온배수 피해로 인한 어업생산기반 상실

영광원전 4개호기 가동에 따른 13.2km의 피해범위 내에서 95년과 97년 2차에 걸쳐 천해어업권 1,534ha 등 총 433여억의 소멸보상이 산정되어 폐업된 어업권에서 연간 110억원의 생산기반을 잃게 되었다.

또한 현재 5, 6호기 가동에 따른 사전피해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해범위가 17km까지로 어업권이 108건에 1,700ha이 포함되었다. 영광원전 보상으로 인해서 연간 250억원의 생산력이 없어진다. 이로서 어업인의 지속 가능한 생산기반 상실과 고창지역 GDP 감소로 지역의 경제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

2) 장기개발에 따른 어항기반시설 부족 어선 피해 발생
공사기간이 2002년부터 2011년까지로 10개년 장기간 시행하게 됨에 따라 어업인의 어선 입출항에 불편을 초래하여 조업 포기과 어선의 안전 수송이 어려워 기상악화에 어선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3) 사업비 투자 부진

구시포어항 시설계획 대비 사업비 투자가 부진하여 시

설공사가 지연되고 있어 어업인의 행정에 대한 불신초래와 어항 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4) 기타

고창군에는 1972년도에 지방어항으로 동호어항이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기반시설이 취약하고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어업인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3. 최근의 고창군 관내 어촌·어항 개발 실적 사례 및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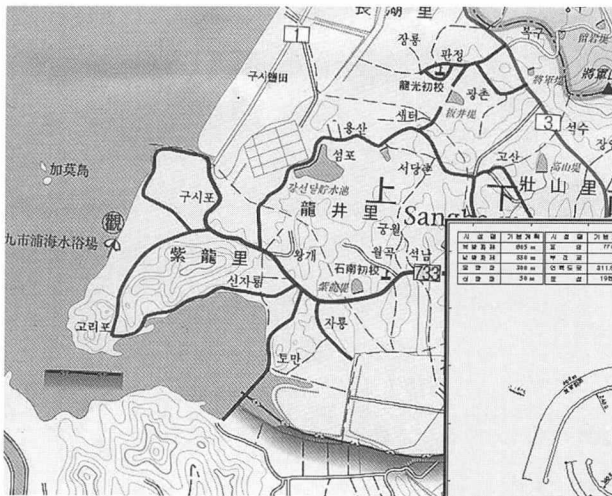
2006년에는 어업인의 의견이 수렴된 안전조업 및 어선의 안전수용을 위한 임시물량장 시설비 국비 33억이 반영되어 시설할 계획이며 또한 어항을 포함한 해안선 종합개

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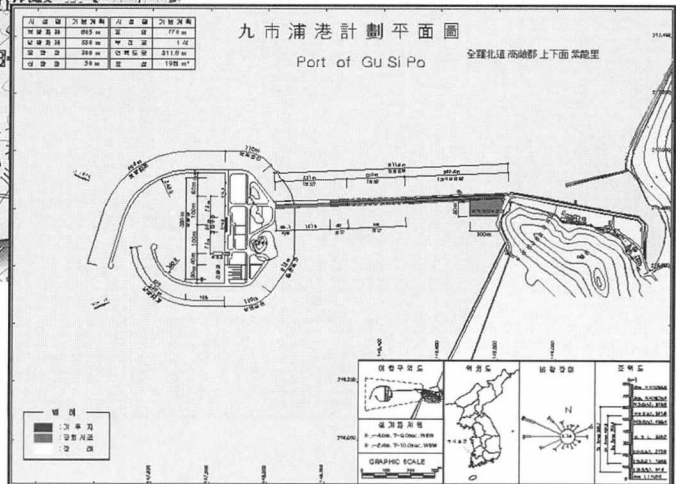
4. 양우 개선 방향

고창군을 찾는 관광객이 400만명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해안지역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어항개발이 시급하고 해수욕장과 연계한 경쟁력 있는 다기능 체류형 공간으로 개발 방향을 세워야 한다. 또한 영광원전 온배수 피해로 인한 어업생산기반 상실에 따른 어업인의 새로운 소득원 발굴과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어항을 개발하기 위하여

첫째, 어항개발 초기계획부터 다기능어항으로 체계적인 개발과 어항부지에 용도지구를 정하여 중복투자 및 난개발을 방지해야 한다.



구시포항 위치도



계획평면도

둘째, 장기간어항개발 계획수립 할 때에는 대체 임시 물량장시설 등의 확충이 필요하고

셋째, 지역특성에 맞는 시설 계획으로 2차 환경피해 및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계획이 필요하며


넷째, 어항을 이용해야 할 주체에 대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어항의 이용자에 대한 편의시설 및 주차장 등을 갖추어 다시 찾는 명소로 개발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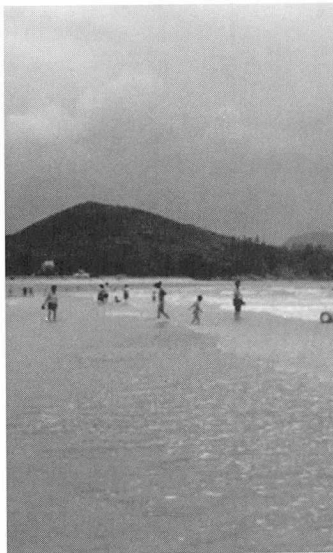
5. 맺음말

어항의 기능이 어업 외에도 다양하게 변화하고, 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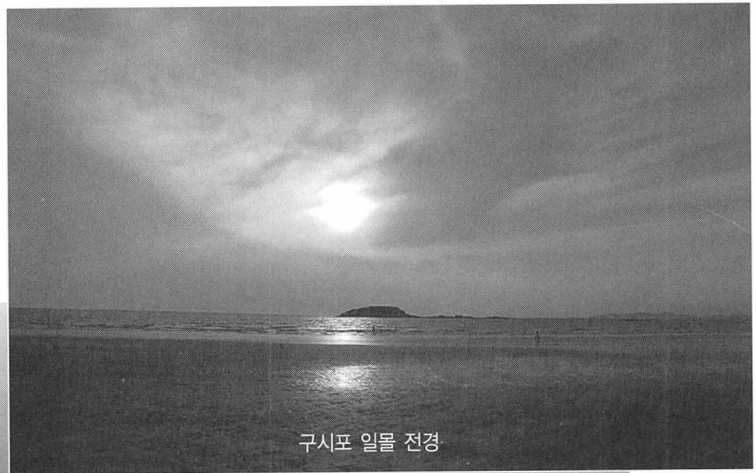
민소득향상에 따라 해양레포츠가 점진적으로 증대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해양레포츠 관광객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다기능 시설은 초기단계부터 반영되어야 하고 장기간 소요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어선어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어항개발은 국가차원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개발행위이다. 어촌의 기능 또한 수산물만을 생산하는 전진기지에서 다기능적으로 발달되어가고 있다.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어항개발은 국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구시포 해수욕장



구시포 일몰 전경